

## “세녹스 과세처분 정당”

**대법원, 확정판결** 영암지역 세녹스 제조회사가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쿠프리플라이트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여 원의 교통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특별 1부는 지난 4월 “첨가제는 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해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줄이는 화학물질”이라며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시한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녹스는 첨가제로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상품명으로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쿠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2년 6~7월 판매분 교통세와 교육세 등으로 19억여 원이 부과되자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하자 삽고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손가락 절단·염산물 혼용 실명 ‘자해’

## 억대 보험금 받아 다단계로 날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자해한 혐의(사기)로 박모(43·화순군 회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8월 광주시 동구 선교동 도로변에서 가로수 지지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을 사용,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해 L보험이 6개 보험회사에서 1억4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이다.

박씨는 공공근로 작업 중 후진하는 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이 사용중인 전기톱이 튕면서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2월 광주시 동구 계림동 앞 도로에서 손가락에 염산을 묻혀 자신의 오른쪽 눈동자를 고의로 찔러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7개 보험회사에서 11억2천6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4천여만원의 카드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최초 범행을 저지른 후 보험금 수령 후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광주 녹화사업 효과

나우침 (6903)

김종우

# 290만 그루 나무 심자 여름기온 0.5~1도 하락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모두가 지쳐있다. ‘더위 탈출’은 2006년 여름의 새로운 트렌드(trend)가 됐다. 나무심기로 도심(都心) 기온을 낮춘 광주시의 사례를 분석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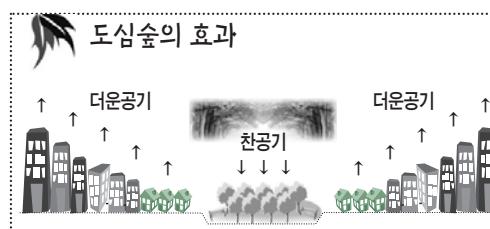
광주 도심 녹화사업이 온도를 낮추는 이른바 ‘냉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후 여름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표>

◇녹화사업 중간평가=광주시는 박광태 시장 취임 이후,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03~2005년까지 100여억원을 들여 폐선부지 푸른 갈·화정 및 상부 등 균린공원·교통섬(60곳)·웰빙 숲 등을 조성했다. 이 기간 중 심은 나무는 무려 290만 그루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녹지예산은 지난 2002년 0.5%에서 1.9%(일반회계 기준, 연 123억원)로 4배 증액됐다. 을 연말까지 삭제 목표는 400만 그루(총 사업비 286억원)다.

녹화사업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일(日) 최고기온의 월(月) 평균은 ▲7월 : 29.2도 ▲8월 : 29.9도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간(1993~2002년)의 7월 평균 30.2도에 비해 1.0도, 8월 30.4도에 비해 0.5도 낮은 수치다. 또 평년 기후(1971~2000년)에 비해서도 각각 0.5도, 0.6도 낮아졌다.

광주시 임희진(51) 공원녹지과장은 이와 관련 “대개적인 녹화사업 이후 도심 내 ‘열섬현상’(heat island)의 강도(强度)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선 3기 종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 나무심기였다”고 밝혔다.

◇향후 목표=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시비 등 총 900억원을 들여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식재 수종(樹種)은 느티나무·팸나무·회화나무·이팝나무·은행나무·소나무 등 5종. 도심 내 가로수는 2002년 8만7천 그루에서 목표연도 12만 그루로 37.9%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 광주 일(日) 최고기온의 월(月) 평균값 비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최근 3년간('03~'05)	24.3	27.6	29.2	29.9	27.1	21.3
최근 10년간('93~'02)	24.2	27.5	30.2	30.4	27.1	21.7
차 이	0.1	0.1	-1.0	-0.5	0.0	-0.4

## 2014년까지 1천만 그루 심어

### 도심 ‘열섬 현상’ 차단하기

#### ‘찜통 대구’ 평균 1.2도 하강

■ 대구의 사례 =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도시는 대구다. 분지(盆地)로 인한 고온 현상을 막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1990년부터 10년 동안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을 전개, 916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1995년 8만4천 그루이던 가로수는 16만5천 그루로 늘고, 녹지 면적은 101km에서 135km로 33% 경증 뛰었다. 대구는 이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녹지사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대구는 최근 10년간 ‘잠마 뒤 7일 간 최고기온’에서 광주보다 6차례나 낮았던 것으로 측정됐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는 ‘기온 분석과 공원녹지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녹화사업 후 대구의 온도가 종전보다 평균 1.2도 하강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녹화사업이 도심 온도를 얼마나 낮췄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의 효과=도시 온도가 농촌보다 높은 이유는 높은 건물과 아스팔트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열섬현상’ 때문이다. 뜨거운 공기층은 도심 상공 300m 높이까지 형성된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곳(樹林帶)은 시가지보다 상대온도가 낮아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이 차기운 공기가 도심으로 흘러면서 ‘열섬현상’을 막는다.

산림학계에 따르면 도시 면적 중 나무가 덮고 있는 비율(수목 피도)이 10% 상승할 때마다 0.6도씩 온도가 내려간다. 독일 스튜트가르트(Stuttgart) 시(市)는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수림(樹林)을 조성, ‘바람길’(Cool Corridors)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연예(자동차)  
**대주 피오레**  
1300-991-9555 353444  
문의 (062)366-4220

경찰 능장에 유족들이 수색 시신 발견

성우팔 ○…실종된 지 18일  
이 지난 험을 찾던 동생이 경찰의 ‘늑장 수사’를 기다리다 못해, 직접 잠수부를 고용해 저수지에서 시신을 발견.

○…9일 오전 10시30분께 무안군 청계면 ‘청수재’에서 물속에 가리앉은 체 숨져있는 이모(48·무안군 운남면)씨와 이씨 소유의 60주 52××호 스포티지 차량을 잠수부들이 발견.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장례식 장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는데, 이씨의 동생(41)은 4일 전 저수지 주변에서 차 바퀴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자 사설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를 뒤졌다.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씨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었다”면서 “저수지에 빠졌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어 수색을 안 했을 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국제페트롤잼버리대회  
스카우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국제페트롤잼버리대회’가 9일 오전 순천시 청소년 수련소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50개국 1만여명의 청소년들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참석,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 광주 서구 전지역

### 올 첫 오존주의보

광주시는 9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구 전 지역에 올들어 첫 오존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오존주의보 발령은 광주에서 오존 측정이 시작된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구 지역 오존 오염도가 이날 오후부터 급격히 상승해 오후 4시 시간당 0.121ppm을 기록해 오존주의보를 내렸다가 1시간만에 해제했다”며 “실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 당 0.12ppm, 경보는 0.3ppm, 중대경보는 0.5ppm 초과시 발령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